

우리나라 여성 창업 중소기업 특성 분석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Female Executives Who Run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in Korea

정길채¹

Gil-Chea Jeung¹

요 약

선행연구들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 경영 참여 수준 등과 같은 특정한 경영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당해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여성 경영인의 경영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여성 경영 기업만의 특성 또는 특화 분야를 파악하여 그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창업경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창업경영의 핵심 요소(창업기업의 법적 형태와 업종별 특성, 창업자금, 창업아이디어와 창업아이템, 입지 특성)를 중심으로 여성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남성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특성별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여성창업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어 : 여성창업, 창업 자금 조달,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 협력 활동, 지속가능한 창업

Abstract

Most prior studies are in analyzing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management policies about specific industries, reg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 issues about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female managers among Korean companie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the critical characteristics of women's management companies and present their future directions. This study identifies Korea women have some difficulties to operate start-up business because of national consciousness to sexual aspects of labor, fund raising, start-up item and business location. In order to manifest the difficult conditions of women entrepreneurs and to promote their businesses, And this study suggests four governmental and political tactical approaches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women-owned company.

Keyword : Wome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Fund Raising, Entrepreneurial Idea and item, Entrepreneurial Network, Entrepreneurial Sustainability

¹ Department of Store Management, Soongui Women's College, Seoul, Korea [Associate Professor]
e-mail: cptkorea@naver.com

Received(January 02, 2020), Review Result(1st: January 21, 2020), Accepted(March 13, 2020), Published(March 31, 2020)



© 2020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여성 경영인을 158만명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전체 산업 경영인(410만명)에서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38% 정도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 가운데 여성이 경영을 이끌어 가는 기업의 실태와 향후의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혼 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한정된 수의 청년 취업자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추세 속에서 향후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여성들이 기업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즉, 여성이 경영하는 회사의 업력, 입지, 경쟁우위 요소, 자금조달 등과 같은 기업 경영의 어려움, 정부지원 등이 경영성과나 기업 경영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창업자가 창업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여성창업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남성 창업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특성 비교를 통해 여성 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미래 여성 창업 활성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표본 구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창업 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1-4]와 성별 구분 없이 창업자를 표본으로 한 연구 [5-7], 그리고 여성창업자를 남성창업자와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한 연구 [8-11]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설문조사나 실태 자료를 기초로 행해진 연구 결과가 여성창업자들만의 고유 특성인지, 아니면 남성창업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인지 확실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여 분석해야만 의미 있는 여성 창업자들만의 고유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별 구별 없이 남성과 여성 창업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창업 특성 차이가 통제된 가운데 통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창업성과나 창업특성을 입증하는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창업자와 여성창업자를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 [8][11]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지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충남 소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금융 상 제약요소가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 [11]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 경영 참여 수준 등과 같은 특정한 경영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당해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여성 경영인의 경영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여성 경영 기업만의 특성 또는 특화 분야를 파악하여 그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창업한 기업과 남성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방법 등 창업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미래 여성 창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자료 [12]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창업경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창업경영의 핵심 요소(창업기업의 법적 형태와 업종별 특성, 창업자금, 창업아이디어와 창업아이템, 입지 특성)를 중심으로 여성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남성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특성별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여성창업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여성경영인 기업 특성 분석과 정책 제안

양성평등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창업가의 역할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성장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 여성 창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기존의 여성 창업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여성 창업자 고유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성별과 관련 없이 나타나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창업자와 남성 창업자를 구분·비교를 통하여 여성 창업 기업만의 고유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창업기업 실태조사 [12] 가운데 여성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4년간의 창업 실태 추이나 남성이 창업한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여성창업 기업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표본(8,000개 기업 대상) 추출 작업과 국가 통계 수치화 하는 작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고서와 자료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창업자와 남성 경영자 사이에 조직 유형(개인과 법인 구성 및 업종) 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리고 여성 창업자와 남성 경영자 사이에 창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창업 자금, 창업 아이템, 입지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3.1 창업기업 형태(개인 또는 법인)와 업종별 실태 비교

Feit 자료 [13]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OECD 국가들의 산업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 경영에서 여성 경영인의 비중이 괄목할 만한 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합한 구체적인 시책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OECD 국가들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 변화 속에서, 여성 경영인의 중소기업으로의 진출 확대가 지식기반산업으로의 확산과 새로운 직업 창출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의 집중해 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자료 [12]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표 1]에 따르면 여성 창업기업의 수는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창업기업의 조직 유형(개인사업 또는 법인)별로 살펴보면, 여성 창업기업에서 법인사업체로 창업을 하는 추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여성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기본적 체계를 설정한 정관이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 등에 있어 조직화되어 가고 있으며, 경영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사업형태로 진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여성경영인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형태 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재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창업기업 형태(개인·법인)별 구성 비율 추이

[Table 1] Trend of Women-owned Businesses (unit: # of businesses, %)

구분	2016			2017			2018		
	기업수(%)	개인%	법인%	기업수(%)	개인%	법인%	기업수(%)	개인%	법인%
전체	1,985,396 (100)	91.8	8.2	2,001,674 (100)	89.2	10.8	2,030,987 (100)	89	11
남자	1,178,116 (59.3)	87.9	12.1	1,231,407 (61.5)	85.4	14.6	1,242,388 (61.2)	85.4	14.6
여자	807,280 (40.7)	97.5	2.5	770,267 (38.5)	95.4	4.6	788,599 (38.8)	94.7	5.3

3.2 창업 시 소요 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 실태 비교

창업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점포 취득 또는 임차, 비품이나 공간·설비 투자, 각종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급, 영업활동과 관련한 운전자금 사용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창업자의 경험이나 창업 아이템 개발 요소 보다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하기 전 창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금조달계획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에 있어 여성 경영 기업과 남성 경영 기업 사이에 창업 소요 자금 조달 방법에 어떠한 특성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표 2]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 중 여성 창업기업의 평균 소요 자금은 218,397,000원이고, 남성 창업기업의 평균 소요 자금은 399,784,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성 창업자는 자기자금과 개인차용 및 비은행권 대출을 주로 하면서도 혁신적이고 기술 관련 분야 창업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개인(엔젤)투자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여성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성별 창업 기업 수와 소요자금 규모 및 조달 방법 구성 비율

[Table 2] Characteristics of Financing Sources between Men/Women-owned Start-ups

여성 창업자 소요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 구성 비율 (복수 응답)

연도	기업 수 (개)	소요 자금 (천원)	자기 자금 (%)	개인 차용 (%)	정부 출연 보조 (%)	정부 용자, 보증 (%)	엔젤, 벤처 캐피탈 (%)	은행, 비은행 대출 (%)
2015	727,965	179,167	94.8	16.3	2.6	5.7	0.2	26.9
2016	807,280	162,498	92.4	21.3	2.6	3.7	0.1	29.7
2017	770,267	184,247	93.3	21.2	2.2	3.5	0.1	28.8
2018	788,599	218,397	93.1	20.5	2.4	3.5	0.3	31.8

남성 창업자 소요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 구성 비율 (복수 응답)

연도	기업 수 (개)	소요 자금 (천원)	자기 자금 (%)	개인 차용 (%)	정부 출연 보조 (%)	정부 용자, 보증 (%)	엔젤, 벤처 캐피탈 (%)	은행, 비은행 대출 (%)
2015	1,165,751	292,512	95.2	16.4	2.9	4.7	1.9	30.0
2016	1,178,116	399,604	91.8	19.3	2.1	3.5	1.1	31.8
2017	1,231,407	403,353	91.2	18.5	2.6	4.3	0.9	30.8
2018	1,242,388	399,784	92.0	19.1	2.5	4.3	1.1	32.1

[표 2]에 따르면, 여성창업자는 남성창업자에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실제 용자 규모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90년대 들어서면서 정책적으로 여성 기업 경영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는 여성창업경진대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활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남성 기업인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창업 장애 요인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한 [표 3]에 따르면, 모든 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자금 가운데 자기자본이나 개인 차용 구성 비율이 높은 것만큼 성공적인 창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창업자의 경우에는 자금 부족 이외에 사업실패나 실패 후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여성 창업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 창업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된 창업 교육이나 인력 양성 훈련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와 여성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및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성들의 특성(섬세한 업무수행능력과 가정 살림이나 육아에 대한 1차적인 책임 등) 을 고려한 사업화를 위해 창업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설계와 여성들에게 맞는 교육과정 지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 [5]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성별 창업 장애 요인

[Table 3] Characteristics of Hindrances between Men and Women Start-up Owners

조사 연도·기업 수 여성 창업자 창업 장애 요인 구성 비율(%)

연도	기업 수 (개)	아이템 부재	자금 부족	경험 부족	실패 두려움	사회 문화	생계 유지	기존 직업 제한	지인 만류	일가정 양립
2015	727,965	6.6	63.8	20.2	33.6	2.2	15.1	0.9	1.9	10.4
2016	807,280	5.7	62.3	26.1	31	1.5	13.6	1.2	1.8	9.6
2017	770,267	5.8	61.3	26.7	31.9	1.8	14.1	1.1	1.4	8.7
2018	788,599	6.2	61.6	27.2	32.5	2	11.4	1.1	1.6	8.5

조사 연도·기업 수 남성 창업자 창업 장애 요인 구성 비율(%)

연도	기업 수 (개)	아이템 부재	자금 부족	경험 부족	실패 두려움	사회 문화	생계 유지	기존 직업 제한	지인 만류	일가정 양립
2015	1,165,751	5.9	71.1	22.1	24.4	2.3	18.6	1.4	2.1	1.4
2016	1,178,116	7	70.3	22.1	24.1	2.7	14.5	0.4	1.4	1.3
2017	1,231,407	7.5	71.2	21.1	24.6	2.4	14.1	0.6	1.7	1.6
2018	1,242,388	7.2	69.3	21.1	25.2	2	14.3	0.5	1.6	1.9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표 4]에 따르면, 80% 이상의 여성경영자들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본 경험이 없고, 신청 후에도 지원 받은 사례의 빈도수가 남성경영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창업 지원 사업 참여 경험

[Table 4]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Support Program Participation between Men and Women Owners

여성창업자				
연도	기업 수(개)	지원받음(%)	신청 후 탈락(%)	신청 경험 없음(%)
2015	727,965	10.8	1.6	87.7
2016	807,280	11.1	1.3	87.6
2017	770,267	12.0	1.7	86.3
2018	788,599	11.6	6.4	81.9
남성 창업자				
연도	기업 수(개)	지원받음(%)	신청 후 탈락(%)	신청 경험 없음(%)
2015	1,165,751	14.5	1.9	83.6
2016	1,178,116	12.5	2.2	85.3
2017	1,231,407	12.9	2.2	85.0
2018	1,242,388	14.0	3.1	82.9

신청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서는 대표적인 불신청 이유가 정부지원사업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원 절차나 선정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지원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하지 않다는 응답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부에서는 매년 초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2020년 정부 창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16개 부처, 90개 사업, 중소기업부 공고 제2020-1호)하여 공고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사업이 여성 경영자들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사업 개발이라거나 여성 창업자에게 적합한 지원 규모나 지원 자격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1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2020년 지원 사업 통합공고에 여성가족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보면 정부의 여성 친화적인 창업지원 정책 개발이 적극적이지 못함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90개 지원사업 주제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오직 하나 즉, 여성창업경진대회(중기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9천만원)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머지 89개 사업에 여성창업자가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창업자와 남성창업자 사이에 자금조달 원천이나 규모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여성을 배려한 창업지원 사업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3.3 창업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 원천 구성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함에 있어 자금이나 상권, 입지 등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창업 아이디어나 창업 아이템일 것이다. 창업아이디어나 아이템이 결정되고 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권을 분석하고 입지를 선택하며 창업 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을 탐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자료(2013~2016년)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표 5]에 따르면 여성창업자와 남성창업자 모두 본인만의 학습 경험과 실무 경험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나 창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이전 등 다른 형태의 창업 아이디어 원천 요소들 가운데 여성창업자는 남성창업자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나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기반 요소들(창업기업, 벤처캐피탈, 법률, 대학, 연구소, 엔젤, 벤처보육센터, 대기업, 컨설팅 사 등)과의 다양하고도 긴밀한 협업(정보 교환과 상호지원 등)이 매우 중요함 [14]을 지적하고 있다. 창업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불가능하므로 창업자 본인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창업지원 기관, 투자자 등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인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 [15]하고 있다. 창업생태계 내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적절히 존재하여야 하며 이들 간의 협업체계 구축이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기술 [16]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가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창업지원 기관,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창업자금 투자자 등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표 5] 성별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 원천 구성 비율

[Table 5] Characteristics of Start-up Idea Sources between Men and Women Start-up Owners

여성 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 원천 구성 비율

구분	기업 수(개)	기술이전(%)	아이디어 보유자와 공동 사업(%)	아이디어 교류·협업(%)	본인만의 아이디어(%)
2015	727,965	10.8	1.4	1.3	86.5
2016	807,280	9.5	3.3	1.6	85.6
2017	770,267	9.5	3.5	1.6	85.3
2018	788,599	8.5	3.6	1.6	86.3

남성 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 원천 구성 비율

구분	기업 수(개)	기술이전(%)	아이디어 보유자와 공동 참여(%)	아이디어 교류·협업(%)	본인만의 아이디어(%)
2015	1,165,751	10.9	2.3	3.2	83.6
2016	1,178,116	10.2	2.6	3.0	84.2
2017	1,231,407	10.5	2.8	2.9	83.8
2018	1,242,388	10.0	3.3	2.7	84.1

3.4 창업 사업장 입지 구성과 특정 입지를 선택한 이유

여성 창업자와 남성 창업자 사이에 입지 유형 선택 상 특성을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6]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 보다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남성 창업자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장에서 검토한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 중소기업 창업자는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에서 주로 창업을 하고, 제조업 등과 같이 남성 창업이 많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높을 것이다.

[표 6] 창업 사업장 입지 특성

[Table 6] Characteristics of Start-up Locations between Men and Women Start-up Owners

여성 창업자의 입지 선택 비율

구분	기업 수(개)	대학, 연구기관 (%)	산업단지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택지역 (%)	기타지역 (%)
2015	727,965	0.1	1.4	48.8	42.8	6.9
2016	807,280	0.1	2.0	49.0	44.0	4.9
2017	770,267	0.1	2.9	49.6	41.3	6.2
2018	788,599	0.3	1.8	50.4	41.8	5.7

남성 창업자의 입지 선택 비율

구분	기업 수(개)	대학, 연구기관 (%)	산업단지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택지역 (%)	기타지역 (%)
2015	1,165,751	0.5	6.9	45.8	33.2	13.6
2016	1,178,116	1.0	8.2	43.8	32.6	14.3
2017	1,231,407	1.4	9.1	44.0	31.9	13.7
2018	1,242,388	1.1	8.5	45.7	31.2	13.4

[표 7] 특정 입지를 선택한 이유

[Table 7] Characteristics of Location Selection Reasons between Men and Women Start-up Owners

여성 창업자의 입지 선정 이유 구성 비율

구분	원재료 취득 용이성 (%)	소비자 접근 용이성 (%)	운·수송비 저렴 (%)	인력확보 용이 (%)	기업·상가 집적 (%)	사업장 취득비용 저렴 (%)	공적지원 수혜 용이 (%)	기타 (%)
2015	17.7	66.5	3.3	4.2	7.6	18.1	0.3	19.4
2016	16.9	63.6	5.9	4.8	6.0	19.0	1.1	21.1
2017	17.7	64.5	5.7	4.5	6.5	17.7	1.3	20.5
2018	15.0	64.5	6.0	4.4	5.8	16.2	1.1	21.5

남성 창업자의 입지 선정 이유 구성 비율

구분	원재료 취득 용이성 (%)	소비자 접근 용이성 (%)	운·수송비 저렴 (%)	인력확보 용이 (%)	기업·상가 집적 (%)	사업장 취득비용 저렴 (%)	공적지원 수혜 용이 (%)	기타 (%)
2015	15.3	52.3	5.9	5.7	10.1	18.6	1.8	24.5
2016	14.7	49.1	6.1	5.3	7.5	20.7	1.2	27.5
2017	13.9	47.5	6.4	5.1	7.9	21.7	1.8	27.3
2018	13.3	48.4	5.3	5.2	8.3	19.8	1.5	27.7

이러한 측면은 특정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게 된 <입지 선정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와도 연계된다. 입지 선정 이유에 대한 2016년 통계 자료를 정리한 [표 7]을 보면, <소비자 접근 용이성> 요소에 있어 여성창업자(64.5%)와 남성창업자(48.4%)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재료 취득의 용이성> 요소에 있어서도 여성 창업자(15%)와 남성 창업자(13%) 사이에 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여성 창업자와 남성 창업자가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별 분석 검토에서 확인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여성은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 전통적인 생계형 업종에서 주로 창업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용이하게 매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이에 비해 남성은 제조업이나 운수업종에서 창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기업·상가 집적> 요소와 <사업장 취득비용> 요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입지 선정 이유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실제 경영활동에서 반영된 결과인 창업기업 연간 자금 운용 상황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 따르면, 접근 용이성 요소를 중시하는 여성 창업자가 부담하는 임차료(18.9%)가 남성 창업자의 임차료(15.9%)에 비해 높은 수준인 가운데 다른 지출 항목인 재료비와 인건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창업기업 자금 운용 상황

[Table 8] Characteristics of Start-up Investing Style between Men and Women Start-up Owners

연도	자금 사용 구분	여자	남자
2018	연간 자금 사용금액 (천원)	194,755.2	259,764.8
	유·무형자산 취득 (%)	2.5	3.0
	재료비 (%)	23.8	23.0
	인건비 (%)	30.0	30.6
	판매비 (%)	2.4	3.8
	임차료 (%)	18.9	15.9
	기타관리비, 경비 등 (%)	21.5	22.3

<소비자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창업기업의 매출 대상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창업기업 매출 대상별 구성과 관련한 [표 9]에 따르면 여성 창업 기업은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95%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성 창업 기업은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나아가 정부기관 등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창업기업 매출 대상별 구성 비율

[Table 9] Characteristics of Client Types between Men and Women Start-up Owners

여성 창업 기업의 매출 대상 구성 비율

구분	기업 수 (개)	대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최종소비자 (%)	정부기관 (%)
2015	727,965	0.7	3.5	95	0.7
2016	807,280	0.8	5.2	93.2	0.8
2017	770,267	0.7	5.7	92.6	0.9
2018	788,599	0.8	4.3	94.3	0.6

남성 창업 기업의 매출 대상 구성 비율

구분	기업 수 (개)	대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최종소비자 (%)	정부기관 (%)
2015	1,165,751	3.8	13.5	81.1	1.7
2016	1,178,116	3.5	18.4	76.0	2.1
2017	1,231,407	4.1	19.8	73.5	2.6
2018	1,242,388	3.8	22.1	71.3	2.8

여성창업자가 남성창업자에 비해 많이 진출해 있는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은 특정지역의 특정지점에서 영업장소로서의 고정적인 입지를 선정하고 이 장소에 고객을 유인하여 상품이나 제품, 개인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을 성립되기 때문에 입지 중심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와 노동 중심 산업에서는 임차료와 원재료 및 인건비 요소가 성공적인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창업자들은 남성창업자들에 비해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 접근 용이성 측면이 강조되는 여성창업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상가 점포 임대료를 더욱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모색과 원료나 재료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4. 연구 결과 요약 및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자료 [12]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창업경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창업경영의 핵심 요소(창업기업의 법적 형태와 업종별 특성, 창업자금, 창업아이디어와 창업아이템, 입지 특성)를 중심으로 여성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남성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특성별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여성 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여성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것은 첫째, 여성창업 기업체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형태로 운영

하는 기업의 비율이 남성 창업 기업체의 비율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가 정관이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경영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사업형태로 진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여성경영인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법인기업 우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창업자들은 지식과 기술 및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여성이 진출될 수 있는 경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경영자들 사이의 전문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여 각양 지식·기술·예술 산업분야의 여성 대표자들을 연결 짓고 지식·기술·예술 분야 여성 장애를 극복하여 이들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자금조달 측면에 있어 여성창업자는 남성창업자에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어려움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록 여성창업경진대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남성 기업인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 창업자의 경우에는 자금 부족 이외에 사업실패나 실패 후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여성 창업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므로 여성을 배려한 창업지원 사업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여성창업자는 본인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높고,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 교류나 협업 등을 통한 창업이 남성창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가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창업지원 기관,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창업자금 투자자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여성 창업자와 남성 창업자 사이에 입지 유형 선택 상 특성을 보면, 여성이 남성 보다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남성 창업자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 접근 용이성 측면이 강조되는 여성창업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상가 점포 임대료를 더욱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모색과 원료나 재료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보고서 상의 자료 [12]를 가지고 여성창업자와 남성창업자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 하고, 여성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탐색적으로 제안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여성창업자와 남성창업자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H. M. Oh, C. Y. Lee, J. S. Kim, "The Study on the Women Entrepreneurs' Psychological, Environmental, Personal Factors Affecting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9, no. 2, April 2014, pp. 45-60, doi: 10.16972/apjbve.9.2.201404.45.
- [2] M. Y. Huh, M. S. Park, "Women'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of Family Farm",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vol. 14, no. 1, June 2004, pp. 205-237.
- [3] K. Ishiguro, "Present Status of Female Entrepreneurs and Japanese Corporate Society : Preliminary Analysis", *Journal of Bunkyo Gakuin University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vol. 14, February 2015, pp. 65-79.
- [4] T. Komatsu,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female executives who run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in Japan", *Rikkyo DBA Journal*, vol. 9, September 2018, pp. 43-59, doi: 10.14992/00017355.
- [5] C. W.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on Knowledge Management: Focusing on Female CEO",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1, no. 6, December 2016, pp. 11-26, doi: 10.16972/apjbve.11.6.201612.11.
- [6] K. S. Song, "The Effects of Business Startup Attributes on the Overconfidence of Business Startup and Entrepreneur's Attitude in Foodservice Industr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3, March 2014, pp. 414-426, doi: 10.5392/JKCA.2014.14.03.414.
- [7] T. U. Ahn, D. H. Han, T. W. Kang,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ompetence Characteristics on Start-U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4, no. 1, February 2019, pp. 73-83, doi: 10.16972/apjbve.14.1.201902.73.
- [8] K. J. Kim, J. B. Choi, T. H.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Female/Male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 in Korea", *The Women's Studies*, vol. 75, no. 2, December 2008, pp. 5-26.
- [9] S. H. Kim, "Woman's Firm,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CEO Leadership, Network Activities"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vol. 14, no. 5, December 2006, pp. 205-235.
- [10] W. Y. Kim, S. H. Hong,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Gender Differences of the Representatives", *The Women's Studies*, vol. 86, no. 1, June 2014, pp. 41-69.
- [11] G. J. Nam, D. M. Lee, L. Chen, "A Comparative Study on Survival Characteristics of Female Startups and Male Startups", *The Women's Studies*, vol. 100, no. 1, March 2019, pp. 125-160, doi: 10.33949/tws.2019.100.1.005.
- [12] K. H. Kim, "2018 STARTUP STATISTIC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Daejeon, Korea, Authorization No. 142016, April, 2019, 2019, [Online]. Available: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1228&tag=&nPage=1.
- [13] R. F. Feit, "Women Entrepreneurs in SMEs: A Vision for the Future", *OECD Conference on Women Entrepreneurs in SMEs: A Major Force in Innovation and Job Creation*, April 16-18, 1997, Paris, France, pp. 101-109.

- [14] B. R. Kwon, J. S. Kim, "A Study on the Strategy for Innovation Platform Management to Promote Venture Ecosystem",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ol. 29, no. 4, August 2014, pp. 137-146.
- [15] S. M. Kim, "A Stakeholder Analysis in Entrepreneurial Eco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3, March 2019, pp. 1-8, doi: 10.21742/AJMAHS.2019.03.01.
- [16] W. J. Lee,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n exploration with the entrepreneurship monitor and Measuring Metrics for Successful Incubator Development,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ISED, Daejeon, Korea, June 2019, [Online]. Available: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tag=&act=view&list_no=1478.